

*Through The Lookingglass DukYoung 2003*

# 청소년, 우리의 희망

워 크 슝

- 사회가 청소년 폭력에 미치는 영향 -

2003. 5

주최 : 재단법인 덕영재단

후원 : 교육인적자원부, 김포대학,

(사)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Through The Lookingglass DukYoung 2003*

# 청소년, 우리의 희망

워 크 슝

- 사회가 청소년 폭력에 미치는 영향 -

일시 : 2003년 5월 27일(화)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최 : 재단법인 덕영재단

후원 : 교육인적자원부, 김포대학,

(사)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 덕영재단 소개

덕영재단은 “밝은 미래를 위한 가치 창조”를 목표로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기르고 긍정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하기 위해 1996년 6월 13일에 설립한 비영리 교육재단입니다.

## 덕영재단 주요 사업 실적

### ■ 국내외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

- 장학사업 : 매년 12월 장학사업으로 지금까지 약 1,500 명에게 장학금이 지급
- 정기 장학생 사업 : 학업을 정상적으로 끝마칠 수 있도록 정기 장학생 3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

### ■ 국내외 학생을 위한 도서보급 지원사업

- 교육만화 출판 보급 : “우리사이 짱이야”라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교육 만화를 출판하여 전국 초등학교 및 기관에 무료 보급.
- 점자악보 출판 후원음악회 : 매년 10월에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자원봉사로 점자 악보 출판 후원음악회를 열어 점자악보를 출판하여 전국 맹학교 및 점자도서관에 무료로 보급. 1999년 바이엘 1·2, 호만 1·2, 2000년 호만 3·4, 가곡집 1·2, 2001년 알프레드 1·2·3, 구스타보랑귀누스 1

### ■ 국내외 학술연구기관 및 개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사업

### ■ 교육 경제 및 역사의 교류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학술연구기관 및 개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사업

- 연구비 지원 : 1999년 연금 투자 극대화에 관한 연구, 금융기관들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1999년 - 2001년 시카고대학교 의과대학 암연구센터

## ■ 국민정신함양과 인성교육에 관한 연구 및 계몽사업

- **인성교육 연구비 지원** : 1999년 - 2001년 인성교육 연구, 2000년 - 2001년 Center for Educational Partnerships(음악을 통한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2001년, Chenny Troupe(동물을 통한 청소년 문제 치료), 2002년 Lookingglass Outreach Program(연극을 통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 ■ 청소년 인성교육훈련 학술연구 및 세미나 개최사업

- **어린이 뮤지컬 공연** : 5월 김포대학 어린이 축제에 김포, 강화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 뮤지컬 공연. 2001년 “알라딘”, 2002년 “팻쥐와 햄버거”, 2003년 “아주 먼 옛날”, 2001년 “춤추는 허수아비”(용인지역)
- **세미나 및 워크숍** : 매년 5월 “Through The Lookingglass/ 청소년, 우리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2000년 시카고시와 공동주최로 “미국 청소년 프로그램 전문가 및 교수 초청 워크숍”, 2001년 부모님들을 위한 워크숍 “자녀의 공격성,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2002년 “집단따돌림(학교폭력)의 실태 및 대처방안”
-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캠프** : 매년 8월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무료캠프 개최.
- **문화를 통한 인성교육** : 매년 12월 무료 청소년 뮤지컬 공연. 2000년 “방황하는 별들”, 2001년 “2001 방황하는 별들”, 2002년 “언제나 마음은 태양”, 2000년 “Orbert Davis Quintet 초청 재즈 공연”, 문화적 혜택을 받기 힘든 청소년들에게 연극이나 음악 등 문화를 통한 인성교육의 기회를 제공(“일식”, “대박”, “태풍”, “시골선비 조남명”등 다수의 작품 관람).

앞으로도 본 덕영재단은 미래 우리의 희망인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Homepage : [www.dukyoung.org](http://www.dukyoung.org)

# 일 정 표

## - 사회가 청소년 폭력에 미치는 영향 -

10:00~10:30	등록	
10:30~10:40	인사말	이사장
	덕영재단 소개	
10:40~11:40	가정, 학교, 사회의 폭력과 청소년	노주선
11:40~13:00	점심식사	
13:00~14:00	사회의 폭력성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신순갑
14:00~14:10	휴식	
14:10~15:50	사례 발표	
		이미혜, 김민선, 김인옥, 장명숙
15:50~16:00	휴식	
16:00~17:30	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 지키기 (사회의 폭력현상과 대처방안)	이재욱

# 차 례

가정,학교,사회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 .....	
사회의 폭력성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	
가정폭력-매맞는 아내와 아이들 .....	
청소년에 미치는 인터넷 미디어의 폭력성 .....	
폭력의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변한 아이들 .....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 .....	
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 지키기 .....	
도움을 주신 분들 .....	
학교폭력 관련 일지 .....	

# 인사말

(수정할것2002)

2000년 5월부터 부모님들과 교육관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덕영재단에서 주최하고 있는 “청소년 우리의 희망” 워크숍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게 생각합니다.

요즈음 방송에서도 다시 부각되고 있는 학원폭력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해 우리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집단 따돌림 실태 연구결과에 의하면 초·중학생의 40-45%가 가해자나 피해자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올해는 “집단 따돌림의 실태 및 대처방안”을 주제로 워크숍을 준비하였습니다. 워크숍 준비 기간 중 많은 분들과 선진국 교육현황에 관한 의견을 나누면서 몇 해 전 서울외국인학교 소식지에서 읽었던 Unity라는 작가 불명의 글이 생각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나는 꿈속에서 작업실 안에 서 있는 두 조각가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린 학생의 마음을 소재로 정성스럽게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조각가는 선생님이었고 책, 음악 그리고 미술 등을 도구로 쓰고 있었습니다. 다른 조각가는 인내심과 사랑으로 어린 학생을 바르게 성장시키려는 부모님이었습니다. 매일 매일 선생님은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조각을 만들었고 부모님은 옆에서 최선을 다해 표면을 갈고 닦아 부드럽게 마무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작품은 완성되었습니다. 두 조각가는 하나가 되어 노력한 결과 완성된 돈으로는 살수도 팔 수도 없는 아름다운 조각품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조각가는 서로의 도움 없이 혼자서는 불가능한 작업이었다고 동의하였습니다.”

부모님 뒤에는 학교가, 선생님 뒤에는 가정의, 아이들의 바른 교육을 위해 신뢰를 갖고 뒷받침 해주신다면 학원 폭력이라는 어려운 문제도 현명한 대처방안을 찾아 우리들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조금 더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매해 세미나를 후원하여주시는 교육인적자원부, 김포대학, 대한어머니중앙연합회 그리고 바쁜 일정 중에도 워크숍을 위해 정성을 다하여 열심히 봉사하여주신 한국과 미국의 교수님들과 봉사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영재단 이사장 전 웰리시아

## 자료삽입

## 도움을 주신 분들

(수정해야할것)

한국인성컨설팅	노주선 대표
노원청소년수련관	신순갑 부관장
성결대학교	이재옥 교수
서울여성의 전화	이미혜 전문상담원
미소심리상담연구소	김인옥 소장
학부모정보감시단	김민선 사무국장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장명숙 소장

김포대학            전홍건 학장    김소양 교수    안정근 교수  
(가나다순)

관심을 갖고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학교폭력 관련 일지(아직 미정)

2001. 11. 15      집단따돌림과 구타의 후유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선정현 (13, 문원초)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
2002. 1. 30      후배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폭력)로 김모(15, 중3)양 등 ㅈ 여중 학생 19명을 불구속 입건.
2002. 1. 2. 19    집단 괴롭힘을 당하던 충남 천안시에 사는 채모(14, 중2)군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
2002. 2. 22      청소년보호위원회 “학교폭력방지특별법” 제정안 초안을 마련 조만간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  
특별법 초안에 따르면 초중고교는 의무적으로 학교폭력 책임교사와 상담교사를 두고 교내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이 전학이나 학급교체를 요구할 경우, 학교측은 실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나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또 집단괴롭힘 등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결석에 대해선 출결점수 등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했다. 가해학생을 교정-교화시설에 수용시키거나 사회봉사명령에 처하는 조항도 마련돼 구체적인 시행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가해학생은 서면을 통해 자신의 폭력행위에 대해 공개사과하도록 했으며, 가해학생의 학부모들도 일정 부분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02. 3. 7      여중생 17% 학교폭력 당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조사.
2002. 3. 12      우리나라 초중고교 학생 가운데 학교폭력 연루비율은 중학교 남학생이 가장 높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후유증은 고등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
2002. 4. 7      학교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해당 학교장이 가해 학생을 일정기간 등교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출석정지’제도를 신설해 운영키로 함.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집단따돌림, 구타 등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가해학생을 일정기간 학교와 격리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마련, 이 달 중 의원 입법으로 제정키로 함.

2002. 4. 8           교육인적자원부는 “2002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의 일환으로 전국의 초·중등 학교 현장에서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학생폭력의 예방·근절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우수사례를 연결, 모든 학교에서 학생 생활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우수사례 전국 공유망으로 구축하기로.
2002. 4. 15         친구가 집단 폭행 당한 데 격분한 방모군(14, 중3)이 수업시간 중 폭행한 동기생 김모군(14, 중3)을 흉기로 살해.
2002. 4. 17         고교 졸업생 이모씨(19)가 자신의 담임이었던 이모(52) 교사를 흉기로 찔러 중태.
2002. 4. 19         교육인적자원부는 올 2학기부터 광역시의 중고교를 중심으로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한 뒤 내년까지 전국 6000 여 개의 중·고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기로 함.
2002. 5. 3           정부는 이한동 총리 주재로 ‘교육인적자원분야 관계 장관 간담회’를 열어 증가 추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해 학교별로 전문상담교사제 및 학교폭력 책임교사제를 도입하고,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분쟁조절 절차 등을 규정한 가칭 학교폭력방지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기로 함.
2002. 5. 9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르면 오는 2학기부터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법무부 소속의 소년원 학교와 일반 학교의 교사들을 교류할 방침.
2002. 5. 22         시민단체, 언론사, 대학 등 132개 단체·기관이 참여하는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발족. 내달 24일부터 6일간을 ‘학교폭력을 걱정하는 주간’으로 정하고 서명운동과 각종 퍼포먼스를 계획.
2002. 7. 31         같은반 친구를 상대로 상습적인 갈취 및 폭력을 휘둘러 일명 ‘학교공포증’을 앓게 한 고등학생 구속
2002. 8.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군현)는 학교폭력특별법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요구.
2003. 2. 1           현직 검사가 폭력서클에 가입돼 학원폭력을 일삼는 중학생들에게 형사처벌대신 독서토론회 등으로 선도한 뒤 학교로 돌려보내 화제
2003. 4. 2           주인공은 울산지검 형사2부 학원폭력 전담 신성식(申成植37) 검사 중학생 2명이 사소한 말다툼 끝에 주택 옥상에서 싸움을 벌이다 3층 높이 아래로 추락,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침.
2003. 4. 12         부산 사상경찰서는 단체기합을 준다며 같은 학교 후배 4명을 집단폭행해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ㄱ중 3학년 정아무개(15)군 등 중학생 4명 구속영장 신청

